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목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4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4월 월삭예배: 4월 1일 (수) 오전 6:00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금주 3/30(월)-4/6(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주의 성소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의미 깊이 새기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활주일 예배안내

다음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러집니다. 부활의 감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4/3(금) 성금요일 새벽예배

*4/5(부활주일) 2부 예배시 세례식(유아세례)이 함께 진행됩니다.

•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날짜 : 4월 24일(금) ~ 26일(주일)

장소 :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강사 : 호성기 목사 PGM(People for Global Mission) 국제대표

•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

* 날짜: 6/29(월)~7/3(금) * 장소: 니과라과 (김향자 선교사 선교지)

* 모집인원: 150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담임목사(248-310-9921)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4월 24일(금) - 26일(주일)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People for Global Mission)

4월 24일(금)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

4월 25일(토) 오전 6:00 선교적인 교회는 기도로 부흥한다

4월 25일(토) 오후 7:30 선교적인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

4월 26일(주일) 오전 8:00, 10:30 선교적인 교회는 사명으로 산다

남부플로리다 감리교회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1,331.00	심일조: \$5,444.00	감 사: \$940.00
	주 일: \$3,186.00	기 타: \$1,761.00
지정헌금 \$1,010.00	목장선교: \$470.00	개인선교: \$500.00
	건 축: \$4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사순절 여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151장(통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기도 Prayer / 김창림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호산나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빌(Phil) 3:13-14.....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몰 입 > Immersion

▲ 파송찬송 Closing Hymn/ 주만 바라볼지라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인자하심이,
십자가를 질수 있나,
나는 일어섭니다.

기도 Prayer / 김세희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호산나 -

2026년 3월/4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3월 29일	1부	아름다운 목장	담당자	김창림장로	베뢰아목장
	2부			김세희권사	
다음주 4월 5일	1부	Unity	담당자	정철조장로	열매목장
	2부			유영래장로	

설교요약

삶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 차서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고, 일 하며,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세상이 준 평안이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문제와 고민이 동시에 몰려와 생각이 꼬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고민, 직장 문제, 건강과 자녀 문제 등 우리의 삶은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단순히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방향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몰입을 관계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몰입의 첫 번째 축은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몰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붙다, 결합하다, 함께 머물다”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바크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단단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적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는 모든 환경이 무너지고, 익숙했던 고향과 안전한 삶을 떠날 선택 앞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확실과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음으로써 새로운 시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몰입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속에서 성장합니다.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 23:8)고 권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 즉 관계의 몰입을 강조하셨습니다.

몰입의 두 번째 축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몰입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목표와 방향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설교 요약>

바울의 삶을 보면, 몰입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아픔과 실패, 상처를 붙들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지나간 것을 흘려보내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달려갈 때, 몰입은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달려갑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몰입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관계와 방향, 두 축으로 이루어진 몰입의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가는 삶이며,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길입니다.

■ < 나눔 질문 >

- 1)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나의 신앙의 정착력은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 2) 최근 내 삶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아닌 다른 곳으로 끌어가거나 흔들 자극은 무엇이었나요? 자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 또는 나 자신이 선택했던 구체적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 3) 뒤에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일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붙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 4)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며 몰입하는 삶을 위해,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나 결단은 무엇일까요?

금주 애찬 섬김

	금주 (3월 29일)		다음주 (4월 5일)
	함호준, 구자현장로		박영희, 고태영권사
	범사감사		생일감사
	베뢰아목장		열매목장